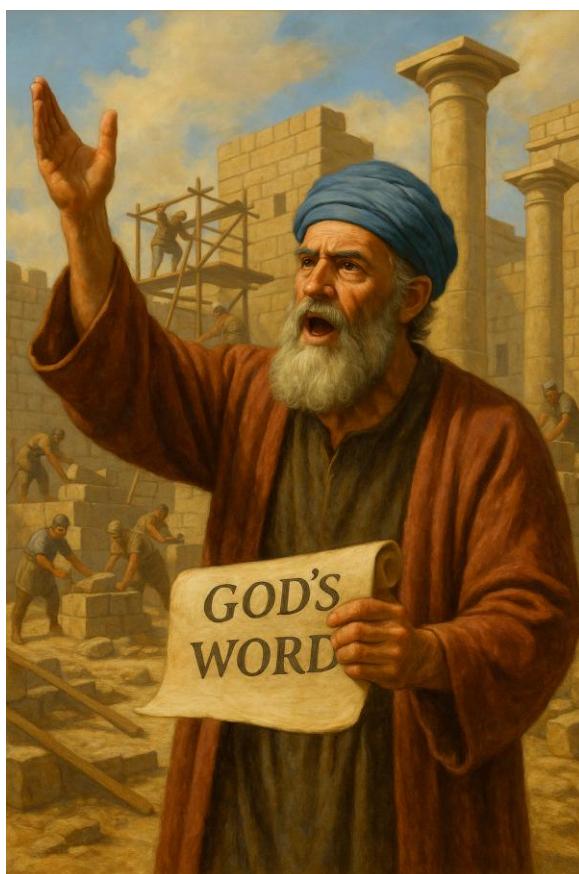


The Message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 의 허계영 번역 version)

스가랴



출처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그림은 AI 가 그린 그림입니다.

1 장

¹⁻⁴ [해설] 다리오 왕의 통치 제 2 년 8 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 스가랴(베레가의 아들이자 잇도의 손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 진짜 화 많이 났었단다. 그러니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내게 돌아오거라. 그럼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마.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거라. 옛 선지자들도 그들에게 말했었지.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완전 무시한 채, 고집 부리며 들으려 하지 않았어.”

(옛 선지자들) 천군천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오.

(하나님) 제발 악한 삶 좀 떠나거라! 악한 짓 좀 그만 하란 말야!

⁵⁻⁶ 그러던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다든? 다 죽어서 묻혔잖니? 그들한테 선포하던 선지자들은 또 어디 있다든? 그들 역시 다 죽어서 묻혔지. 근데 말이야, 나의 종들-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만큼은 죽지도, 묻히지도 않았어. 그 메시지가 너희 조상들한테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 잘 알지? 그 메시지가 그들을 깨워 돌아오게 한 거지. 결국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

(조상들)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것도 완벽하게! 우리가 한 짓, 다 들켰다고!

첫 번째 환상: 말 탄 자 네 명

⁷ [해설] 다리오 왕의 통치 제 2 년 11 월 21 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 스가랴(베레가의 아들이자 잇도의 손자)에게 임했어요.

⁸ [스가랴] 어느 날 밤, 내가 밖을 내다보니, 아 글쎄 붉은 말을 탄 한 남자가 보이지 않겠소? 그가 자작나무숲 그늘 속에 있었는데, 그 뒤로 말 몇 마리가 더 있더군. 다음 아닌 붉은 말, 밤색 말, 그리고 흰색 말이었다오.

⁹ 내가 물었소.

“천사님, 이 말들이 여기서 뭐하는 거죠? 이 환상의 뜻이 뭔가요?”

그러자 그 메신저 천사가 말했다오.

(천사) 지금부터 보여 드리죠.

¹⁰ [스가랴] 그때 자작나무숲에 있던 붉은 말 탄 사람이 큰소리로 말했소.



(붉은 말 탄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을 순찰하라고 보내신 기수(말 탄 자)들입니다.

¹¹ [스가랴] 그러더니 그 말 탄 자들이 자작나무숲에 계신 하나님의 천사에게 보고했소.

(말 탄 자들) 저희가 온 땅을 둘러보니, 모두 조용하고 평화롭더군요. 모든 게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12 [스가랴] 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더군.

(하나님의 천사) 오, 천군천사의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들을 향해 진노하실 건가요?
언제쯤 화가 풀리실 건가요? 7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13-15 [스가랴] 하나님은 그 메신저 천사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으로 답하셨고, 천사는 곧 내게 말했소.

(하나님의 천사)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란 말이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단다. 그곳은 내게 정말 특별한 곳이지. 하지만 말이야, 세상이 자기들 것인 양 구는 그 불경건한 민족들한테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사실 전에는 내가 화를 조금 냈었지. 그런데 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지 뭐니? 그래서 이제 내가 나서려는 거야.

16-17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다. 다만 이번엔 연민의 마음을 품고 왔지!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이라오.

(하나님) 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걸 봐야겠구나.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공사 구역도 이미 다 표시해 놨다.

다시 한번 분명히 전하거라.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내 성읍들이 다시 번영할 거란다.

나 하나님의 시온을 다시 위로할 거란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사랑할 거란다.

두 번째 환상: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18 [스가랴] 내가 눈을 들어 보고… 또 하나님의 환상에 깜짝 놀랐지 뭐요? 이번엔 네 개의 뿔이 나타난 거요.

19 난 메신저 천사한테 물었다오.

“이 환상의 의미는 뭔가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더군.

(메신저 천사) 이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흩어버린
세력들이랍니다.

20 [스가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환상들을 더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대장장이 네 명이
나타났다오.



²¹ 난 물었소.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요?”

(메신저 천사) 저 뿔들은 유다를 완전히 박살내 아무런 희망도 없게 만든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들이 이 뿔들을 부수러 온 겁니다. 불경건한 민족들, 자기 뿔로 유다를 사방에 흩어버린 자들!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의 뿔을 죄다 뽑아버릴 겁니다.

2 장

세 번째 환상: 줄자를 들고 있는 남자

¹⁻⁵ [스가랴]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랐다오.

글쎄 어떤 남자가 줄자를 들고 있지 뭐요?

내가 물었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측량맨) 예루살렘을 조사하러 가는 길입니다. 성읍의 너비와 길이를 재려 갑니다.

[스가랴] 그때 나타난 한 메신저 천사가 나타나 또 다른 천사랑 마주치더니 이렇게 말했소.

(메신저 천사) 빨리 달려가 그 측량맨한테 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사람과 동물로 넘쳐나, 성벽이 터질 듯 할 거다. 내가 예루살렘 한 가운데 있을 거다.

비록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지만, 내가 이 성읍의 불벽이 되어 줄 거란다.

그 안에서 내가 찬란한 빛으로 함께할 거란다.

* * *

⁶⁻⁷ [스가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어서 일어나거라! 거기서 빠져나오거라! 지금 당장!

유배지에서 돌아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어 놨지만,

시온아, 이젠 바벨론에서 탈출하거라! 고향으로 돌아오거라! 빨리빨리!

* * *

⁸⁻⁹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며 보내셨소. 그대들을 발가벗긴 자들, 그대들의 집을 빼앗은 불경건한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너희를 치는 자는, 날 치는 거나 마찬가지란다. 바로 내 코피를 터뜨리고(쌍코피 줄줄^^), 내 눈을 명들게 만든 거란 말이다. (눈팅이 밤팅이^^)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보낼 거다. 그럼 그들의 종들이 그들을 발가벗기고, 집에서 쫓아낼 게다.

[스가랴] 그때 그대들은 확실히 깨닫겠지.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음을….

* * *

¹⁰ [하나님] 시온의 땅아, 환호하고 기뻐하거라!

내가 간다! 너희 동네로 내가 들어가 살 거란다.

[스가랴]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¹¹⁻¹² [스가랴] 그때 수많은 불경건한 민족들도 하나님과 연결될 거요.

(하나님) 그들 역시 내 가족이 될 거란다! 내가 그들 집에 들어가 살 거란다!

[스가랴] 그때 그대들은 확실히 깨닫겠지.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음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의 유산을 되찾으실 거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실 거요.

* * *

¹³ [스가랴] 쉿! 모두 조용!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오! 지금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오. 주님이 직접 나서셨구요.

3 장

네 번째 환상: 여호수아의 새 옷

¹⁻² [스가랴] 그러더니 이번엔 메신저 천사가 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 주더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아 글쎄, 고발자 하나가 나타나 그를 고발하는 게 아니겠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고발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하나님] 이 고발자야! 나 하나님아 널 좀 혼내 줘야겠구나! 너 단단히 혼구녕 좀 나야겠다! 난 예루살렘을 택했어! 놀랐지? 모든 게 불길에 휩싸인 와중에서도, 난 그 불구덩이에 손을 뻗어 예루살렘을 건져낼 거라고!

³⁻⁴ [스가랴] 한편,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군. 그러자 천사가 그 시종에게 말했소.

(천사)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어라.

[스가랴] 그리고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소.

(천사) 보시오. 내가 그대의 죄를 벗기고, 대신 깨끗한 옷을 입혀 줬다오.

⁵ [스가랴]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말했소.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새 터번을 씌워주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그들이 내 말대로, 그의 머리에 깨끗한 새 터번을 씌워 줬다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옷 입히는 일을 마쳤소. (전속 스타일리스트^^)

⁶⁻⁷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한테 명령했다오.

(하나님의 천사)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명령이오.

(하나님) 네가 내 말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나를 섬기면, 네가 이 모든 일에 결정권을 갖고 내 일을 감독하게 해 주마. 또한 여기 서 있는 내 모든 종들도 널 섬기게 해 주마.

⁸⁻⁹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도, 너랑 함께 앉아 있는 네 친구들도, 모두 조심하거라. 네 친구들도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단다. 이제 내가 행할 일을 알려 주마. 내가 나의 종 ‘나뭇가지’를 소개해 주마. 잘 기억하거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두는 이 돌에는 눈 일곱 개가 달려 있지.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선포한다. 내가 이 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새길 거란다.

‘내가 이 땅에서 그 더러운 죄를 단번에, 단 하루만에 벗겨 버리리라.’

¹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울타리 너머 서로의 현관에서 친근한 만남을 가질 거란다.



4 장

다섯 번째 환상: 등잔대와 올리브나무 두 그루

¹ [스가랴] 메신저 천사가 다시 나를 불렀소. 그때 난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소. (비몽사몽^^)

²⁻³ 그가 물었소.

(메신저 천사) 뭐가 보이나요?

[스가랴] 내가 대답했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한 개가 보여요. 그 위에 등잔이 놓여 있네요. 그 등잔에는 일곱 개의 관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등잔 양쪽에는 올리브나무가 한 그루씩 있군요.”

⁴ 그리고 내가 메신저 천사한테 물었소.

“천사님,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⁵⁻⁷ (메신저 천사)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스가랴) 모르겠는데요…?

(메신저 천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건 네가 얹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오직 내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메신저 천사)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큰 산아, 네가 뭐 대단한 것 같지? 하지만 스룹바벨 옆에서 너는 작은 흙덩이에 불과해.

스룹바벨이 모퉁이돌을 그 자리에 세울 거야. ‘그래, 이거지! 계속해!’라는 응원을 받으면서 말야.

⁸⁻¹⁰ [스가랴]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했다오.

(하나님)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단다. 그래, 그가 이 일을 완성할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니? 바로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너 스가랴를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증거지. 누가 감히 ‘시작’이 시시하다고 비웃겠니? 스룹바벨이 ‘마지막’ 돌을 놓는 걸 보면서 그들 마음이 짹다 바뀔 텐데?

[스가랴] 그러더니 다시 환상을 통해, 메신저 천사가 내게 말했다오.

(메신저 천사) 일곱 등잔은… 탐조등처럼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¹¹⁻¹² [스가랴] 내가 물었소.

“그럼 등잔 양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요? 그건 무슨 의미죠?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올리브나무 가지 두 개는 또 무슨 뜻이고요?”

¹³ (메신저 천사)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스가랴) 네, 천사님, 모르겠어요….

¹⁴ (메신저 천사) 이 두 그루 나무는 온 세상의 주인 곁에 서서, 온 세상의 금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들입니다.



5 장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책

¹ [스가랴] 내가 다시 고개를 들어 보니-놀랍게도-날개 돋힌 책이 한 권 보였다오. 바로 날아가는 책이었지. (일명 비행서^^)

² 메신저 천사가 내가 물더군.

(메신저 천사) 뭐가 보이니요?

(스가랴) 날아가는 책이 보여요. 세로 9m, 가로 4.5m 가량 되는 무지하게 큰 책이요.

3-4 (메신저 천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이 책은 온세계에 퍼져 있는 도둑들과 거짓말쟁이들에 대한 판결문이란다. 책의 전반부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후반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한다는 내용이지. 내가 이걸 보냈단다. 이 책이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집에 날아들 거란다. 이 책이 그들 집에 떨어지면, 집의 목재든, 석재든, 가리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액폭탄급 비행서^^)



일곱 번째 환상: 광주리 속의 여인

5 [스가랴] 메신저 천사가 다시 나타나 말하더군.

(메신저 천사) 위를 올려다보세요. 그리고 뭐가 보이는지 말해 보세요.

6 (스가랴) 세상에! 이건 또 뭐예요?

(메신저 천사) 이건 여행 중인 광주리예요. 그 안엔 모든 사람의 죄-온 세상의 죄-가 담겨 있답니다.

7 [스가랴] 그때 광주리의 납뚜껑이 열렸는데, 그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지 뭐요?

8 (메신저 천사) 저 여자는 악녀예요.

[스가랴] 그러더니 천사가 그 여자를 광주리 안으로 다시 밀어 넣고 납뚜껑을 단단히 닫더군.

(1 분 휴식 끝!^^)

9 그때 내가 위를 올려다봤더니… 놀랍게도 두 여인이 날아오르지 뭐요? 그들은 날개를 펴고 광주리를 하늘로 들어 올렸소.

10 내가 메신저 천사한테 물었소.

“이 여인들이 광주리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죠?”

11 (메신저 천사) 동쪽 시날 땅요. 여인들이 거기에 창고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창고가 완성되면 광주리를 거기다 보관할 겁니다.



6 장

여덟 번째 환상: 네 대의 전차

¹ [스가랴] 내가 다시 고개를 들어 보니… 또 다른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소. 그건 다름아닌… 두 개의 산 사이에서 네 대의 전차가 달려 나오는 광경이었다오. 산들은 구리로 돼 있었소.

²⁻³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었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세째 전차는 흰 말들이, 마지막 네째 전차는 얼룩무늬 말들이 끌고 있었소. 말들 모두 힘이 세더군. (이것이 진정한 마력^^)



⁴ 내가 메신저 천사한테 물었소.

“천사님,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⁵⁻⁷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소.

(메신저 천사) 이들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지요. 북쪽으로 달리는 검은 말들 뒤를 흰 말들이 따르고 있죠. 얼룩무늬 말들은 남쪽으로 달리고 있고요.

[스가랴] 그때, 땅을 정찰하기 위해 나온 그 힘센 말들이 빨리 달리고 싶어 발을 구르더군. 그러자 천사가 명령했소.

(메신저 천사) 가서 땅을 정찰해라!

[스가랴] 그러자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리기 시작했소.

⁸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소.

(메신저 천사) 저 말들이 달려가는 걸 좀 보세요! 북쪽으로 가는 말들이 주님의 영을, 고요하고 안전한 우리 주님의 영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 그쪽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나뭇가지’라는 이름의 남자

⁹⁻¹² [스가랴] 그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했소.

(하나님) 포로들에게서 모금을 하거라. 헬다이와 도비야와 여다야한테서 모금을 하거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막 돌아왔단다. 요시야(스바냐의 아들)의 집에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게다.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기부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여호사밧의 아들) 머리에 씌우고 다음과 같이 전하거라.



¹²⁻¹³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정신 바짝 차리시오. 여기 ‘나뭇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소. 그가 자기 자리에서 돌아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요. 맞소, 바로 그 사람이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왕의 역할을 맡아 왕좌에 앉아 통치할 거요. 이로써 왕과 제사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 줄 거요.

14 또 다른 면류관 하나는 왕권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놓일 거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헨(스바냐의 아들)이 관리하게 될 거요. (면류관 지킴이 4 인방^^)

15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거요. 이로써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나를 그대들에게 보내셨음이 증명될 거요. 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요.”

7 장

“너희는 종교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단다.”

1 [해설] 다리우스 왕의 통치 제 4 년 9 월 3 일,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임했어요.

2-3 벤엘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을 필두로 사절단을 보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들 및 선지자들과 상의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죠.

(벤엘 사람들) 다가오는 8 월, 예루살렘 함락 70 주년이 되는 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애통과 금식의 날’을 계획해야 할까요?

4-6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셨소. 바로 벤엘 사람들과 온 백성,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메시지라오.

(하나님) 너희가 70 년간 매년 5 월과 7 월에 금식을 하긴 했지. 그런데 그게 날 위한 것이었니? 너희가 절기를 지켰던 게 정말 날 위한 것이었냐고? 천만에! 너희는 종교에만 관심이 있지.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단다.

7-10 이에 대해 더 말해 뭐 하겠니? 예루살렘이 아직 변화한 성읍이던 시절, 외곽 지역인 네게브랑 세펠라에 사람들이 북적이던 그때, 옛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 아직도 너희한테 있잖니?

[해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 맞아, 메시지는 변함이 없단다.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이렇게 말한단다.

“서로 공정하게 대하거라.

이웃을 사랑하거라.

서로에게 연민을 갖거라.

과부, 고아, 나그네, 빈민을 등쳐먹지 말거라.

남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지 말거라. 그건 악한 일이란다.”

11-13 [스가랴] 하지만 그대들의 조상이 이 말을 들었소? 천만에! 그들은 이를 악물고 고집을 부렸소. 귀를 틀어막았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옛 선지자들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전한 성령충만한 설교에 마음을 닫고 고집을 피웠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요. 엄청 화가 나셨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 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까….

13-14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그들 말을 듣지 않으련다.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렸다. 그들이 어딜 가건 외지인 신세였어. 그들의 ‘약속의 땅’은 잡초와 깡통과 엉겅퀴만 남은 공터가 됐고. 생명체라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 그들이 ‘꿈의 땅’을 ‘쓰레기 땅’으로 만들었으니까….



8 장

성전 재건

1-2 [스가랴] 그후 천군천사의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임했다오.

[하나님]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시온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단다. 내가 시온을 아낀다고!

그래서 내가 시온에 대해 진노하는 거야. 내가 가만 있지 않는다고!”

* * *

[스가랴]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³ [하나님]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단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다.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뭔지 아니?

진리의 성읍!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 * *

4-5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노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란다. 그들이 거리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지팡이를 짚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거란다. 예루살렘이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란다.

어린이들이 공원을 가득 메울 거란다. 그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놀 거란다. 예루살렘에 어린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거란다.

* * *

⁶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소수의 생존자들이 돌아와 성전 재건하는 게 어려워 보이니? 하지만 나한테도 그게 과연 어려울까? 그게 내 손안에 있다는 걸 모르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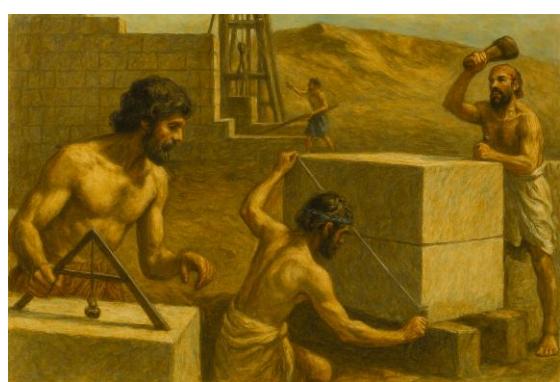
* * *

⁷⁻⁸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동쪽 나라들에서, 서쪽 나라들에서, 내가 내 백성을 불러 모으련다.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와 예루살렘에 살게 하련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내가 그들과 함께할 거란다. 그들을 내가 옳은 길로 인도할 거란다.

* * *

⁹⁻¹⁰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거라.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힘을 내거라.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단다. 맞아, 성전재건이 이미 시작됐지. 그동안 너희… 진짜 힘들었지? 아무리 일해도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았으니…, 그나마 받으면 다행이었지. 밖은 늘 위험했고, 한시도 방심할 수 없었잖아. 웬 줄 알아? 내가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었거든!

¹¹⁻¹² 하지만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편에 설 거란다.

파종과 수확이 다시 시작될 거란다.

포도나무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텃밭의 작물들도 무력무력,

이슬과 비도 촉촉이….

땅을 온통 ‘초록초록’하게 만들어 주마.

¹²⁻¹³ 생존자들이 필요한 대로 뭐든-아니 그 이상으로-누리게 해 주마. 지금까지는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한 민족’으로 불리웠지만, 내가 이제 너희를 구하러 가마. 이제부터 너희는 ‘축복받은 민족’이란다. 그러니 겁내지 말거라.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거라.

심풀하고 정직하게 살거라

¹⁴⁻¹⁷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날 화나게 했을 때, 난 참지 않고 제대로 벌을 줬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복을 주기로 맘 먹었거든. 그러니 두려워 말거라. 다만 너희가 해 줘야 할 일이 있어.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거라. 서로에게 옳은 일을 행하거라.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말야. 남을 속여 등쳐먹는 얄팍한 수는 그만! 옳지 않은 걸 말하거나 행하는 것, 난 정말 싫다. 한마디로, 심풀하고 정직하게 살란 말이지.

[스가랴]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18-19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내게 임했다오.

[하나님] 지금까지는 4 월, 5 월, 7 월, 10 월이 슬퍼하며 금식하던 절기였지만, 이젠 그날들이 유다에게 잔칫날, 기쁨의 절기가 될 거란다. 그러니 진실하게 살거라! 평화를 사랑하거라!

* * *

20-21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각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랑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게다.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할 게다.

(각국 지도자들) 우리도 가야 하지 않을까?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천군천사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 왜 머뭇대는 거야? 빨리 가자고!

22 [스가랴] 수많은 나라들, 힘 있는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천군천사의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 할 거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러 올 거란 말이오.

* * *

23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그날이 오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열 명이 유대인 한 사람의 소매를 잡고 늘어지며 이렇게 말할 게다.

(사람들) 하나님의 그대와 함께 계시단 얘길 들었소. 나도 함께 데려가 주시오. (묻어 가기^^)

9 장

온 세상이 하나님만 바라보네

1-6 [스가랴] 전쟁 속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드락 땅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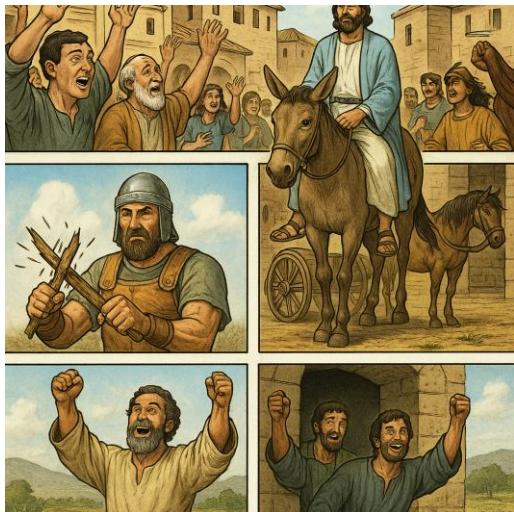
다메섹에도 임했다오.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만 보고 있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하맛도,
잘났다고 품 잡는 두로랑 시돈도 마찬가지요.
돈 맛 좀 본 왕국, 두로!
장작더미처럼 은을 하늘 높이 쌓아 놓고,
건초더미처럼 금을 수북이 쌓아 놓은 그들.
그런데 어찌나? 하나님이 두로를 과산시키실 텐데?
그 돈 모두 바다에 던지시고,
남은 건 짹 다 불태워 버리실 텐데?
그 광경을 본 아스글론은 멘붕,
가사는 가슴을 치면서 안절부절,
에그론은... 폭망, 살 길이 없구나!
가사 왕은 저 세상 신세,
아스글론은 텅텅 빈 유령도시,
아스돗도 양아치 손에 넘어갈 판이구나.
6-8 [하나님] 교만한 블레셋을 내가 꺾어 주마.
그 괴 묻은 전리품을 뱉아내게 해 주마.
그 역겨운 짓거리도 멈추게 해 주마.
하지만 남은 자들은? 모두가 나 하나님의 것이란다.
생존자들이 유다 땅에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해 주마.
하지만 에그론 같은 적들은?
여부스 사람들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게다. 완전 퇴장이지.
"내가 내 땅에 진을 칠 테니,
침입자들로부터 철통 방어를 할 테니,
내 백성, 아무도 못 건드린다!
내가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을 지키고 있단다!"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왕

9-10 [스가랴] 시온의 딸아, 환호하고 기뻐하거라!
예루살렘의 딸아, 큰 소리로 외치거라!
너의 왕이 오신단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선한 왕,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왕,



그것도 어린 나귀새끼로구나.
지긋지긋한 전쟁, 다 끝났단다.
에브라임에 더 이상 병거가 없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군마가 없구나.
칼, 창, 활, 화살? 그게 뭐지?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선물하실 그분,
오대양 육대주를
평화로 다스리실 거란다.
11-13 [하나님] 내 피로 언약을 맺은 너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절망의 감옥에서 풀어 주마.

희망을 되찾은 죄수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무나!

오늘 내가 두 배의 복을 약속하마.
네가 잃어버린 것들, 두 배로 돌려주마.
유다는 나의 무기, 내가 당길 활.
에브라임은 내 활시위에 장전된 화살.
시온아, 내가 네 후손들을 깨워
헬라의 후손들과 맞서게 해 주마.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 곧 내 칼이란다!”

14-17 [스가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요.
번개처럼 번쩍이는 화살을 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며
회오리바람처럼 출격하실 거요.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지키실 거요.
이건 전면전이오.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총력전이라오!
그들의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요. 주님이 그들을 직접 구출하실 거요.
그들은 순한 양, 온순한 양이 될 거요.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햇빛을 받아 총천연색으로 빛날 거요.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나는 그들! 오, 얼마나 아름다울까!
청년들은 불끈불끈 힘이 솟고,
처녀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요.

10 장

하나님의 재건 프로젝트

¹ [스가랴] 지금은 봄비(늦은 비)가 와야 할 때가 아니오?

그러니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시오.

비도 만드시고,

봄철 천둥도 만드시는 주님께,

곡식과 보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께….

²⁻³ 가게에서 구매한 가짜 신들은 그저 우물쭈물,

횡설수설….

종교 전문가들은 말만 번지르르….

그럴듯하게 떠들지만 다 혀소리.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모두 쓰레기.

그러니 백성들이 길 잃은 양처럼 혼미하고 있지.

목자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양처럼….

[하나님] 소위 ‘목자’라는 자들한테, 나 진짜 화났다.

염소만도 못한 그들, 내가 제대로 염소 취급해 주마.



³⁻⁵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주님의 양떼인 유다 백성을 돌보실 거요.

그들 영혼을 다시 살리실 거요.

‘주님은 나의 편’이라는 사실에 그들도 자신감이 뿐!

하나님이 그들을 주님의 ‘재건 프로젝트’에 사용하실 거요.

그들이 바로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도구가 되고, 건축자재가 될 거요.

주님이 그들을 ‘주님의 성전재건 프로젝트’의 리더로 쓰실 거요.

한 팀이 된 그들, 어깨에 힘 빼~주고, 고개를 번쩍 들고,

높이든, 진흙탕이든, 어디든 힘차고 당당하게 걸어 나갈 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세상이 뭐라 해도 겁먹지 않고, 용기 있고 위풍당당하게 해쳐 나갈 거요.

⁶⁻¹² [하나님] 내가 유다 백성에게 힘을 실어 주련다.

요셉의 자손들도 구원해 주련다.

내가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단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려는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려는 거라고!
왜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기필코 할 거란다.
에브라임 백성이 다시 이름을 떨치게 해 주마.
그들 삶에 기쁨이 넘쳐 뎅실덩실 춤추게 해 주마.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 기뻐하게 해 주마.
그래, 다 같이 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마.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들이 내게 달려올 거란다.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해 줬단다. 오,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지!
내 비록 그들을 세상 끝으로 흘렀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날 기억할 거란다.
이 이야기를 자녀에게 생생하게 전해줄 거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란다.
내가 그들을 서쪽 애굽에서 데려올 거란다.
동쪽 앗수르에서 불러 모을 거란다.
꿀 빠는 땅 길르앗으로 데려올 거란다.
푸르른 땅 레바논으로 데려올 거란다.
온 땅이
귀향 행렬로 가득할 거란다.
험한 바다도 거뜬히 항해하고, 거친 파도도 가볍게 해치고 올 거란다.
출령이는 강물도 그들 앞에선 잔잔해질 거란다.
거드름 피우던 앗수르? 홀라당 알몸이 드러날 게다.
악당짓 하던 애굽? 완전 사기꾼임이 폭로될 게다.
하지만 내 백성은… 그래, 강하게 해 줄 거란다. 나 하나님의 수퍼파워로!
그들이 내 길을 따라 살게 될 거란다.
[스가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오.

11 장

1-4 [하나님] 교만한 레바논아, 이민자들을 위해 국경을 개방하거라!
너의 보초병 노릇하던 나무들이 불탈 게다.
큰 소나무들아, 소리 내 울어라! 자매인 백향목들아, 통곡하거라!

네 거대한 나무들이 땔감처럼 쓰러졌구나.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흐느끼거라!
울창했던 너의 숲, 그루터기 밭으로 변했구나.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니?
모든 걸 잊고 울부짖는 목자들의 울음소리가?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니?
요단 강변의 울창한 밀림이 다 파괴됐구나.
이젠 귀향할 백성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거라!

아름다운 언약이 깨지다니…!

⁴⁻⁵ [스가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양떼를 돌보거라. 그들이 학살당할 운명에 처해져 있구나. 사람들이 양들을 사들인 후, 그저 돈벌이를 위해 잔인하게 도살할 게다. 더 끔찍한 건,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 문제없이 잘만 넘어간다는 거지. 그들을 팔아 넘긴 자들이 하는 소리 좀 들어 보렴.

(삯꾼 목자들) 와, 운수대통이네! 하나님의 내 편이신가 봐! 대박이 났어!

[하나님] 정말이지… 양들한텐 전혀 관심 없는 목자들이로구나.

⁶ [스가랴]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이제 이 땅 백성을 손에서 놓으련다. 그러니 이제 각자 알아서 살거라. 약육강식의 세상, 모두들 제 살 궁리만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 말거라.

⁷⁻⁸ [스가랴] 그래서 내가 양들을 맡아 기르게 되었소. (열결에 양치기^^) 돈만 밝히는 주인들이 학살하려던, 바로 그 양들을 맡아 길렸지. 한편, 목자용 지팡이 두 개를 취해, 하나는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짓고, 다른 하나는 ‘화합’이라고 이름 지었소. 그리고 양을 돌보려, 양치기 일을 하려 나갔지. 한 달도 못 되어 나는 부패한 목자들을 다 쫓아냈소. 나도 그들을 견딜 수 없었지만, 그들 역시 날 싫어한 게 사실이었으니까.

⁹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 역시 양들에게 지쳐갔소. 그래서 말했지.

“이젠 정말 질렸어. 더 이상 양치는 일을 못하겠다고! 죽을 놈은 죽고, 물릴 놈은 물리라지. 살아남은 놈끼리 서로 잡아먹든 말든, 난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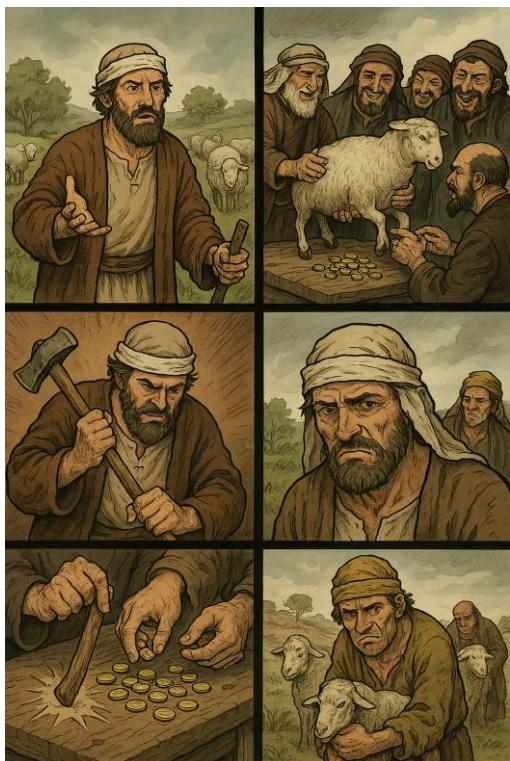
¹⁰⁻¹¹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지은 그 지팡이를 내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소. 내가 온 백성들과 맺었던 아름다운 언약을 깨뜨린 거요. 지팡이가 부러지는 순간, 언약도 함께 깨졌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돈만 밝히던 주인들이 깨달았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¹² 그래서 내가 말했소.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만큼 돈을 내시오.” (몸값^^)

그러자 그들이 내민 금액은 고작 은전 30 개! 정말 모욕적인 액수였다오.

¹³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하나님] 그 돈, ‘불우이웃 돋기 현금함’에 던져 버리거라.

[스가랴] 이렇게 인색하게 임금을 주다니! 그들이 날, 그간의 내 노력을, 이 정도로밖에 안 봤다니! 그래서 난 은전 30 개를 들고 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불우이웃 돋기 현금함’에 던져 버렸다오.

14 그리고 이번엔 ‘화합’이라는 이름의 지팡이도 내 무릎 위에서 꺾어 버렸소. 이걸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 관계마저 끊어진 셈이지.

15-16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하나님] 명청한 목자처럼 차려입거라.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그런 목자를 이 땅에 세울 거니까… 약자들에게 무관심하고, 길 잃은 자들을 외면하고, 다친 자들을 내팽개치고, 선량한 시민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목자 말이다. 그가 모두를 이용하고 학대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 게다.

17 망조로구나, 너 쓰레기 같은 목자야!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다니!

네 팔에 저주를 내려 주마.

축 늘어진 팔,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 주마.

네 오른쪽 눈에 저주를 내려 주마.

눈이 완전히 멀게 해 주마.

12 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1-2 [스가랴] 전쟁 속보: 하나님-우주에 하늘을 펼쳐 만드시고, 굳건한 기초 위에 땅을 세우신 하나님, 당신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이자 선포요.

[하나님] 잘 보거라. 내가 예루살렘을 독한 술잔으로 만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들이 그 술을 마시고 취해 비틀거리게 해 주마.

³ 그 중대한 날이 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커다란 바위덩이로 만들어 모든 사람의 길을 막으련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모여들어 그걸 없애려 하겠지만, 그걸 치우려는 자마다 다 자폭하고 말 게다.
⁴⁻⁵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이라오.

[하나님] 그 중대한 날이 되면, 내가 모든 군마를 두려움에 빼지게 만들어 주마. 그 기병들도 마찬가지로 공포에 빼지게 하마. 하지만 유다만큼은 내가 지켜 주련다. 적군의 말들을 눈멀게 해, 유다를 보호해 주마. 그럼 유다 가문들이 깨닫게 되겠지.

(유다 가문들) 그래,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강하고 유능한 것은, 그들이 천군천사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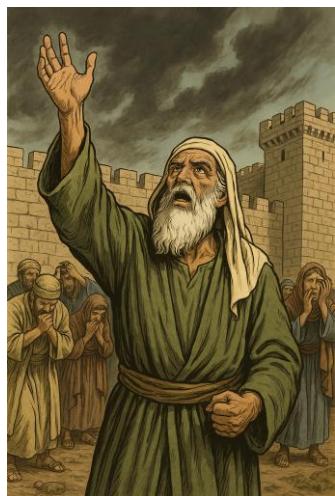
⁶ [하나님] 그 중대한 날이 되면, 내가 유다 집안을, 마른 숲속에 던진 불붙은 성냥개비처럼 만들련다. 건초더미로 가득한 혀간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만들련다. 유다 집안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뭐든-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바로 자기 옆 사람까지 사방의 적을-다 불태울 게다. 그러는 사이, 예루살렘은 고향 땅에 돌아와 정착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게다.

⁷⁻⁸ 나 하나님의 유다의 평범한 가정들부터 회복시켜 줄 거란다. 유다의 평민들의 영광이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영광 못지 않게 해 주련다. 그 중대한 날이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을 보살핌으로써, 가장 비천하고 약한 사람조차 다윗처럼 영광스럽게 해 줄 거란다. 다윗 가문은 나 하나님의 천사처럼, 백성을 인도하는 천사처럼 만들어 줄 거란다.

⁹ 그 중대한 날이 되면, 예루살렘과 맞서 싸웠던 모든 악한 민족들을 내가 다 쓸어 버리련다.

¹⁰⁻¹⁴ 그리고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돌봐 주련다. 그들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도 부어 주련다.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깨닫겠지. 자신들이 그토록 심하게 상처 입혔던 이가, 날카로운 창으로 찔렸던 이가 바로 나였음을… 그럼 그들이 호느껴 울 게다. 마치 맏아들을 잃은 부모처럼, 애끓는 심정으로 통곡할 게다. 오, 그들이 얼마나 격하게 호느낄지… 그날, 예루살렘 전역에 어마어마한 통곡이 일어날 게다. 마치 뜬것도 벌판에서 하다드-림몬을 애도하던 날처럼, 예루살렘의 애가가 엄청날 게다.

모든 사람이 울고 애통할 게다.



그 땅도, 그 땅 주민도, 각자 따로 떨어져 슬퍼할 게다.
다윗 가문과 그 여인들도
각자 따로 떨어져 슬퍼할 게다.
나단 가문과 그 여인들도
각자 따로 떨어져 슬퍼할 게다.
레위 가문과 그 여인들도
각자 따로 떨어져 슬퍼할 게다.
시므이 가문과 그 여인들도
각자 따로 떨어져 슬퍼할 게다.
나머지 모든 가문과 그 여인들도

각자 따로 떨어져 슬퍼할 게다.

13 장

목욕재계

¹ [하나님] 그 중대한 날이 되면,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한 샘이 터질 게다. 그 샘이 그들의 죄를 씻어낼 게다. 그들의 더럽고 지저분한 삶을 빽빽 씻어낼 게다.

²⁻³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오.

[하나님] 그 중대한 날이 되면, 가짜 신들-상점에서 구입한-을 내가 다 없애 주마.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게 해 주마. 사람들이 ‘그 우상들 이름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잊게 해 주마. 또한 헛소리로 세상을 어지럽히던 거짓 선지자들도 없애 주마. 누구든지 더러운 헛소리를 계속 퍼뜨리면, 그의 부모가 직접 나서서 말할 게다.

(거짓 선지자의 부모) 그만! 넌 끝났어! 네가 퍼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자식이 ‘나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로 예언한 것’으로 인해,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일 게다. 그가 자기 친부모 손에 죽을 거라고!

⁴⁻⁶ 그 중대한 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공개되어 망신을 당할 게다. 그제야 그들은 ‘환상’ 운운하며 사람들을 속였던 걸 후회하면서, 더 이상 선지자 옷을 입거나, 선지자 행세를 하려 들지 않을 게다. 다들 발 빼려 들면서 이렇게 말할 게다.

(거짓 선지자들) 에이, 나 선지자 아니야! 그냥 농부예요! 어릴 때부터 농사만 짓고 살았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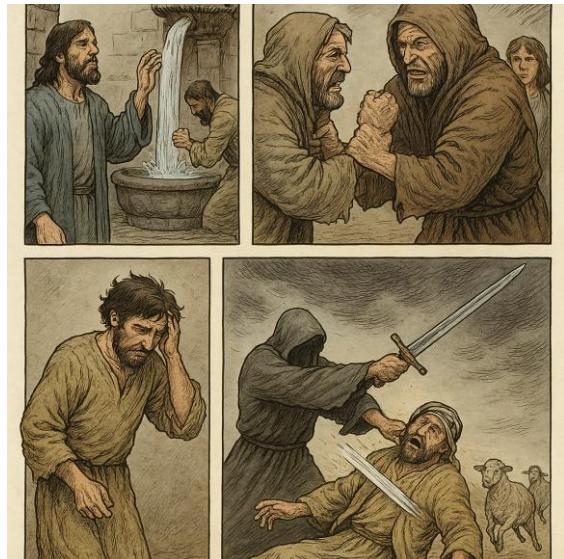
[하나님] 그러다 혹여 누가 ‘그럼 자네 눈은 어쩌다 그렇게 맑이 든 거지?’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게다.

(거짓 선지자들) 아, 이거...? 그냥 친구네 집 문에 부딪친 거예요.

* * *

⁷⁻⁹ [하나님] 칼아, 깨어나거라, 내 목자를 향해!

검아, 내려치거라, 내 가까운 동료를!



[스가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목자를 죽여라. 양떼를 흘여 버려라!

내가 손등으로 어린양들을 치린다.

온 나라 곳곳으로!

[스가랴]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2/3는 멸절당하고

3/1만 살아남을 게다.

살아남은 1/3도 제련소 불길에 던지린다.

은을 제련하듯 그들을 제련하련다.

금을 시험하듯 그들의 순도를 시험하련다.

그제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겠지.

그럼 내가 그들에게 직접 응답해 주마.

내가 ‘이들은 내 백성이야’라고 말해 주마.

그럼 그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지.

14 장

그날이 오고 있다

1-2 [스가랴]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소.

[하나님] 높이 쌓인 약탈물이 적들 차지가 될 게다.

내가 모든 불경건한 민족을 데려와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거거든.

집들은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할 게다.

성읍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 절반만 남게 될 게다.

3-5 [스가랴]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불경건한 민족들과 싸우실 거요.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질 거요! 그날, 주님은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동쪽 감람산 위에 우뚝 서실 거요. 감람산 한가운데가 갈라져 동서로 뻣은 넓은 계곡이 생길 거요.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밀려날 거요. 그때 그대들이 계곡을 따라 죽여라 도망칠 거요. 그 길을 따라 내려가 아살까지 이를 거요. 유다 왕 웃시야



시절, 대지진이 났을 때처럼 죽어라 도망칠 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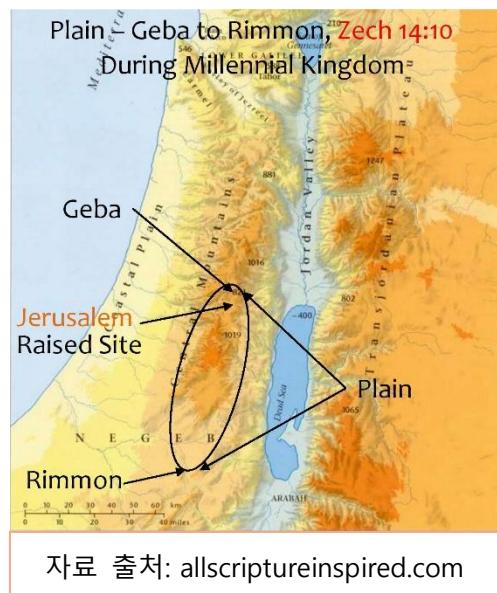
그리고 마침내… 나의 하나님이 오실 거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6-7 오, 그날이 얼마나 놀라울지…! 더 이상 추운 밤이 없을 거요. 아니, 밤 자체가 사라질 거요. 그날-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오-이 오고 있다오. 낮만 계속되는 때가 오고 있단 말이오. 저녁이 되면 어느새 상쾌한 아침으로 곧 이어질 그때가….

8 오, 그날이 얼마나 굉장할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강들이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거요. 일 년 내내, 사시사철 멈추지 않고 흐를 거요.

9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거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 그날이 얼마나 멋질지…!

* * *



10-11 [스가랴] 땅이 예루살렘 주위로 넓게 펼쳐질 거요. 북쪽으로는 계바까지, 남쪽으로는 림몬까지… 예루살렘이 중앙에 우뚝 솟아 있고, 우람한 성문들이 ‘베냐민 문-첫째 문-모퉁이 문-하나넬 망대-왕립 포도주 저장고’까지 성읍을 둘러쌀 거요. 성읍이 사람들로 북적일 거요. 예루살렘이 다시는 파괴되지 않을 거요. 진짜로 안전한 성읍이 될 거란 말이오.

12-14 반면, 예루살렘과 맞서 싸웠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거요. 걸어다니는 중에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고, 눈이 눈구멍에서 놀아내리고, 혀는 입 안에서 썩어갈 거요. 그들이 서 있는 채로 죽을 거요. 그러면서 대홍란이 일어날 거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요. 아군끼리 서로 싸우고 죽일 거요. 그들이 거룩한 공포에 휩싸일 거요! 그리고 이 틈을 타 유다가 싸움에 뛰어들 거요.

14-15 각 민족에게서 쓸어온 보물들-금, 은, 최신 패션의 옷 등-이 하늘 높이 쌓일 거요. 이 재앙은 동물들에게도 임할 거요. 말, 노새, 낙타, 당나귀 할 것 없이, 적진의 모든 생물이 재앙을 당할 거요.

* * *

16-19 [스가랴] 예루살렘과 전쟁했던 불경건한 민족들 가운데 생존자들 전원이 매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올 거요. 그들이 진정한 왕, 천군천사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거요. 생존자 중 한 명이라도… 진정한 왕, 천군천사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매년 순례를 오지 않으면, 그곳엔 비가 내리지 않을 거요. 예를 들어 애굽인이 예배하러 순례를 오지 않으면, 애굽에 비가 오지 않을 거란 말이지… 어떤 민족이든 초막절에 순례를 오지 않으면, 그 땅에

재앙이 내릴 거요. 애굽이든, 다른 어떤 민족이든, 초막절에 순례를 오지 않으면 다 벌을 받을 거란 말이오.

20-21 그날, 그 중대한 날이 되면, 말방울에도 ‘하나님께 성결’이란 글귀가 새겨질 거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솔들조차 제단의 잔과 접시처럼 거룩해질 거요.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집 부엌의 솔과 냄비도 천군천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거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그 솔과 냄비로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드릴 거요. 그 중대한 날이 되면,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더 이상 장사치들이 보이지 않을 거요.

